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이기정	학번	
이메일	leche00@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노팅엄대학교 정책학	(국가) 영국
기 간	2017.1.~2018.1	[귀국일: 2018년 2월 9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3월 8일

신 청 인 : 이기정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 영국의 날씨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흐린 날이 많은 편임. 특히 1월 학기가 시작한 때에는 날씨가 상당히 춥고 비가 자주 내리고 있었음. 그렇지만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영국의 날씨는 해가 길고 맑은 날이 이어지므로 여름 기간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음.
- 노팅엄대학교가 소재한 노팅엄대학교는 영국 중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영국의 여러 지방에 다니기 편리하였으며, 인근에 이스트미들랜드 공항이 있어 유럽 각 도시로 저렴한 가격에 연결되는 장점이 있었음
- 자녀들의 학교는 집을 구한 후에 집이 소재한 곳의 council에 연락하여 중간입학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 후 학교에 다니기까지 2,3주 정도 소요
- 영국의 학교들은 Ofsted 라는 평가결과에 따라 1등급에서부터 낮은 등급까지 등급의 차이가 있음. 경영평가나 학생들의 통합교육 (장애인 통합 교육 실시 여부)이나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평가한 것인데, 1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꼭 등급이 높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음. 주위에서 2,3등급 학교를 보내면서도 교사들의 헌신도 등에 만족하는 경우를 다수 보았음.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노팅엄대학교 정책학 석사 과정은, 절반은 강의, 절반은 토론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의 질은 무난한 것으로 보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영국, 미국, 캐나다, 타 유럽 국가, 동남아 국가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있음.
-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의 관련된 정책 (예: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그 외의 국가들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 노팅엄대학교 정책학 석사 과정의 경우 들어야 할 수업이 거의 정해져 있어 수업 선택에 대한 개인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음. 본인의 경우 1년 동안 7개의 수업을 듣고 1개의 논문 (15,000자)을 작성하였음.
- 수업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에세이 제출로 이루어졌으며, 수업의 학점에 비례하는 글자 수의 에세이를 제출하게 됨. 보통 3,000-5,000자의 에세이를 제출하였음.

- 논문의 경우 여름 방학 기간에 짬짬이 작성을 하였으며, 수업에 제출하여야 하는 에세이와 같은 주제로 하는 경우 자료 찾기 등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부분이 있음.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노팅엄대학교는 기숙사가 있긴 하나, 가족 기숙사는 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기숙사 담당 부서에 메일로 연락을 해도 답장을 거의 받지 못하는 등 기숙사 배정 서비스는 실망스러움. 본인은 집을 렌트해서 거주했음.
- 집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아파트 형태의 플랏이 많으며, 단독주택인 경우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정원이 비교적 넓은 것이 장점인 것 같고, 플랏의 경우 그 반대이기는 하지만 단독주택보다는 덜 추운 것이 장점이었음.
- 영국은 식재료비가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하여 음식을 해서 먹기 편리하였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다양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운동 동아리 등에 가입해서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음.
- 노팅엄대학교의 경우 9월 학기 시작이 보편적이라, 1월 학기에 시작하는 본인과 같은 학생들의 경우 학교 각종 시설 안내 등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불편한 점이 있었음.
- KDI에서 협약교인 노팅엄대학교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해 놓으신다면 후배들이 편리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학교 과정은 전반적으로 무난하며, 영국 내에서 렌트비와 생활비가 매우 저렴하여 지내기 편리한 측면이 있었음.
- 그러나, 노팅엄대학교는 KDI와 연계된 학교임에도, 입학 전에도 학교 자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자료를 보내주는 등의 홍보가 전혀 없었고, KDI에서도 그 학교의 수업 내용이나 생활 환경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영국의 다른 학교 유학과 마찬가지로 Tier 4 비자를 신청하면 되고, NHS (국가의료보험)의 비용까지 함께 지불하게 됨.

- 출입국의 경우 유럽내 다른 국가를 육상으로 지나갈 경우 (버스, 자동차 등) 별도의 여권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비행기나 프랑스로 가는 기차 등을 탈 때는 여권이 반드시 필요함.

- 영국에 입국한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에서 발급 받았던 임시비자가 아닌, BRP라는 카드 형식의 비자를 받으러 학교나 우체국 등 지정된 기간에 가서 비자를 수령하는 일임. BRP를 받게 되는 장소의 운영 시간을 구글로 미리 확인하고 가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임.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영국 노팅엄은 영국 전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렌트비 (1달 500-700파운드)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이며, 노팅엄대학교는 한국에서는 다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학교이나, 정책학 분야에서 영국내 5위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로 공부하는 여건도 좋은 학교임.

- 유럽 내 여행을 편리하게 다니면서도 공기가 매우 맑고 런던 같은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낼 수 있는 노팅엄대학교를 고려하는 것도 추천드림.